

파견기간	2019.02.15.~ 2019.06.25	교 환 학 생 귀국 보고서	소 속	기계항공공학부
파견국가	중국		성 명	이종호
파견대학	북경대학교		작성일	2019.07.28

I. 개요

1.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동기

- 대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막연히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언론 매체와 주변에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언급될 때마다 '중국'이라는 나라를 실제로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 한 켠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중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런 계기를 통해 중국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면서 공과대학 Global Leadership Program (GLP)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신청해 북경대학교로 교환학생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2. 중국어 실력

- 저도 그랬고, 실제로 중국 학교에 지원하기 전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중국어'에 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개설된 초급 중국어I, 초급 중국어II, 중급 중국어I을 수강하고 실제 북경에 가서 현지인들과 실전으로 중국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한달 정도 지나고 나서는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 생활을 통한 중국어 실력 향상 여부는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이라는 기회를 활용하여 하루종일 중국어만 사용할 수도 있는 반면에, 본인이 마음먹기에 따라 중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여기서 HSK 급수는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현지인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HSK 급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HSK 6 급의 점수를 가지고도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고, HSK 급수는 없지만,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북경 사투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교과서적인 보통화 발음에 익숙해져있던 저는 처음에 자신감을 잃기도 했고, 적응하는데 상당한 고생을 했습니다. 실제 중국인들이 발음하는 중국어를 알고 싶다면 유튜브 '시리 TV'채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파견 지역/대학 소개

- 북경대학교는 중국의 명실상부한 명문대학교입니다. 실제로 북경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고향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공부를 잘 하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자부심도 굉장하고, 모든 중국인들에게 최고라 인정받는 대학교입니다. 북경대학교는 특히 문과와 기초과학 분야가 유명하고 바로 옆에 위치한 칭화대학교가 명문 공대로 유명합니다. 북경대학교와 칭화대학교가 인접해서 위치하다 보니 두 대학교 간의 교류도 많고 주변에 대학가가 형성되어 있어 생활이 편리합니다.

4. 유용한 웹사이트

-<http://dean.pku.edu.cn/englishcourses/index.html>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http://elective.pku.edu.cn/>

수강신청사이트입니다. 초기 비밀번호는 생년월일로 기억합니다.

-<http://studyatpku.com/>

교환학생 신청, 기숙사 신청을 하는 사이트입니다. 기숙사 자리가 너무 부족해서 수강 신청처럼 대기하다가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pku.edu.cn/campuslife/xl/index.htm>

북경대학교 학사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course.pku.edu.cn

서울대학교의 ETL과 비슷한 사이트입니다. 수업자료들이 업로드 됩니다.

-its.pku.edu.cn

교내 와이파이를 접속하기 위한 등록사이트입니다. 한달에 10元입니다.

II. 출국 전 준비 사항

1. 비자 신청 절차

- 공과대학 대외협력실에서 연락이 오면 서류를 받아서 X2 비자(6개월)를 신청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단수 비자이기 때문에, 교환학생 기간에 한국에 들어올 일이 생긴다면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2. 중국 은행카드 발급

- 돈을 환전하는 방법은 제각각이지만 주로 중국은행 카드를 발급해서 갑니다. 중국은행 카드는 한국에서 원화로 입금하면 중국에서 인민비를 출금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환율이 계산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 모바일 결제시스템(微信, 支付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새로운 카드를 발급 받아야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준비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3. 기타 도움이 될 만한 내용

- 중국 기숙사에 입주하게 되면 (中新)한국인 중고거래 단톡방도 있고, 한국인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단톡방이 존재합니다. 입주 초창기에 주변 한국인분들을 찾아서 정보를 공유하면 더욱 풍요로운 북경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 기숙사에 정수기가 없기 때문에, 물을 주문해서 마셔야 합니다. 방 앞까지 물을 배달해주는 단톡방도 있기 때문에 직접 무겁게 들고 오지 마시고, 물 배송 단톡방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II. 학업

1. 수강신청 방법

- 수강신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 후에 원하는 과목을 신청하면 됩니다. 저는 수강신청 기간을 착각하여 2 일차에 수강신청을 했는데도 인원이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공과대학에서 열린 과목만 수강신청을 할 수 있고, 만약 영어 강의만 들어야 한다면 생각보다 선택지가 별로 없어서 수강신청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2. 수강과목 설명

- Heat and Mass Transfer (열전달)

기계공학과에서 열리는 열전달 수업과 동일합니다. 매주 과제가 있고, 3 차 고사와 마지막 프로젝트로 성적을 평가합니다. Conduction, Convection, Radiation 에 대해서 순서대로 배우고 각 파트가 끝날 때마다 시험으로 평가를 합니다. 수업은 주로 영어로 진행되었지만 어려운 개념을 설명하실 때는 중국어를 사용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프로젝트가 원래는 2 인 1 조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저는 혼자서 프로젝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외로웠습니다.

- Specialized English on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材料科學工程英語)

재료공학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영어로 배우고, 교수님께서 선정하신 논문을 같이 읽고 해석하는 수업입니다. 중간, 기말 두 번의 시험으로 성적이 평가됩니다. 다루는 내용이 방대하지만,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언급해주시기 때문에, 수업에 열심히 참여한다면 시험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Dialogue with Global Innovation Masters (全球創新大師對話)

매번 다른 분야에서 활동 중이신 연사님들 초청해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강연을 듣는 강의입니다. 교수님께서 굉장히 인자하시고, 통역가분도 계셔서 중국인 연사분이 오시면 외국인 학생들을 모아서 동시통역도 해주십니다. 조를 구성하여, 한 분의 연사님에 대해 강연 전에 인터뷰하고 강연이 시작되기 전에 학생들이 간단하게 연사님을 소개하며, 강연이 끝나고 강연을 요약하여 제출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3. 수강 팁

- 수강신청 변경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 첫 수업에 참여해서 수업의 분위기와 커리큘럼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첫 수업이 끝나고 Wechat 으로 수업 단톡방을 만들기 때문에 첫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공지사항들이 단톡방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 수업을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 나중에라도 단톡방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 3 학점 수업은 서울대학교처럼 1 시간 30 분씩 두 번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홀수 주차에는 2 시간씩 2 번, 짝수 주차에는 2 시간 씩 한번,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강의 계획서에 (1周, 2周) 이런식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시거나, 주변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줄 것 같습니다.

- 수강신청을 할 때, 수강신청 사이트에서 기말고사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국일을 정하실 때 유용할 것 같습니다.

4. 학업 관련 팁

- 제가 북경대학교에 있을 때는 중앙 도서관이 공사중이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특히 시험 기간이 되면 공부할 자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앞으로 중앙도서관이 완성된다면 이런 문제는 사라질 것 같습니다.

IV. 생활

1. 가져가야 할 물품

- 오도구에 한국 음식점, 한인 마트가 있고 타오바오에서 많은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준비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한국어로 된 중국어 책, 샤워 필터기, 마스크, 상비약은 미리 준비해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현지 물가 수준

- 사치를 부리지 않는다면, 전반적으로 물가가 비싸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 특히 대중교통과 학교 식당의 음식들이 쌉니다. 학생 식당은 학생증에 돈을 충전해서 결제하는 방식인데 외부 음식점에서 먹는 것보다 확실히 싼 가격으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 대부분 타오바오를 이용해 쇼핑을 많이 하는데 정말 다양한 물건들을 다양한 가격으로 팔고 있습니다.

3. 식사 및 편의시설 (식당, 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

- 학교가 크다 보니, 학교 안에 식당이 많습니다. 식당마다 특색이 있으니 직접 돌아다니면서 중국 음식을 먹어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음식을 좋아해서 기숙사에서 한국 음식을 배달시켜 먹기도 했습니다.
- 학교 안에 큰 호수(未名湖)가 있는데 풍경이 아름다워서 산책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 헬스장, 수영장 등등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잘 되어있고, 선택지가 많으니 요금을 비교해보고 시설과 거리를 고려해서 등록하면 됩니다.
- 중국에 처음 간다면,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Wechat 과 연동시켜야 합니다. 중국은 현금과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주로 핸드폰 QR 코드를 이용해서 결제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처음 할 일은 핸드폰을 개통하고, 은행에서 계좌를 발급받은 후에 Wechat 과 연동시키는 일입니다.
- 학교가 크고 학교에서 오도구까지 거리가 꽤 멀기 때문에, 학생들은 주로 전동차나 자전거를 이용합니다. 저도 전동차(자토)를 이용하였고, 공유 자전거도 자주 이용하였습니다.

4. 학교 및 여가 생활 (동아리, 여행 등)

- 북경대에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저는 동아리에 꾸준히 참여하지는 못했는데, 본인이 열심히 참여하기만 한다면 친구들을 사귀는 데에는 동아리 활동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 중국은 땅이 정말 넓기 때문에 중국 각지로 여행을 많이 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항공편이 연결되지 않은 곳으로 여행을 간다면 특별한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5. 기타 도움이 될 만한 내용

- 중국에는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정말 원하는 만큼 다양한 음식들을 즐겨볼 수 있고, 원한다면 한국처럼 한국 음식만 먹으면서 생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주변에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봄에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공기청정기를 하나 구매했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마스크를 끼고 외출했습니다. 심할 때는 정말 심하지만, 미세먼지가 없는 날도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중국에서 생활하며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식당에 차가운 물이 없다는 점입니다. 중국에서는 주로 음식과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는데, 저는 이 부분이 돌아올 때까지도 적응이 되지 않아서 차가운 음료수를 따로 주문해서 마셨습니다.

V.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 사람마다 교환학생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다르겠지만 제가 교환학생을 가면서 정한 목표는 '일상으로서의 중국'을 경험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중국인 학생들과 만나기 위해 노력했고, 중국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언어의 장벽에 가로막히기도 했고, 문화 차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돌이켜보면 제가 북경대학교에서 보낸 시간은 모두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번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그 분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와 인연을 맺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특히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공과대학 대외협력실 선생님들과 공과대학 동문회 선배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